

## 사진으로 본 제주여성과 근대

김 은 석<sup>1)</sup>

### Jeju women and modernity in photographs

Kim, Eunsuk<sup>1)</sup>

**요 약 :** 대부분의 근대와 관련된 이론들은 대개 남성 중심적이다. 근대적 여성성에 대한 많은 지배적인 표상들은 남성적 편견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경험을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읽지 못했다. 이 분석은 페미니즘이론이라는 렌즈를 통해 제주의 근대를 다시 읽고자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나는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분석을 시도했다. 만약 남성의 경험을 모범적인 것으로 택하지 않고 여성에 관한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살핀다면 근대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근대성의 문화에 대한 분석에서 흔히 이차적이거나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여성적인 현상에 핵심적인 중요성을 부여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과정은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낼 것인가? 결국 여기서 나는 제주의 근대성이 역사의 특정한 순간에 탄생한 동질적인 시대정신이라기 보다는 서로 다른 시기에 출현하여 발전했으며, 종종 성찰적으로만 근대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철학적 줄기들이 서로 얽혀 있는 집합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는 제주여성의 삶은 근대적인 현상에 의해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근대성의 지배적인 구조와 논리와 바깥에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여성사라는 분리된 영역이 존재할 수 없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여성성, 근대성, 제주여성, 여성의 역사

**Abstract :** Most contemporary theories of the modern are male -centered. Many prevailing representations of modern femininity was shaped by the preoccupations of masculine ideal and cannot simply be read as accurate representations of women's experience. The starting point of this analysis is a desire to reread Jeju modernity through the lens of feminist theory. I began asking myself the following questions: How would our understanding of modernity change if instead of taking male experience as paradigmatic, we were to look instead at texts written primarily by or about women? And what if feminine phenomena, often seen as having a secondary or marginal status, were given a central importance in the analysis of the culture of modernity? What difference would such a procedure make? Thus, my intent here is to claim that Jeju modernity is not a homogeneous Zeitgeist which was born at a particular moment in history, but rather that it comprises a collection of interlocking institutional, cultural, and philosophical strands which emerge and develop at different times and which are often only defined as modern retrospectively. And I suggest that Jeju women's lives have been radically transformed by such modern phenomena, and in this sense, there can be no separate sphere of women's history outside the prevailing structures and logics of modernity.

**Key words:** femininity, modernity, Jeju women, women's history

<sup>1)</sup>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사회과교육전공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eskim@jejunu.ac.kr

##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근대성(modernity)에 젠더(gender)라는 함수가 개재될 때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sup>1)</sup> 이를 위해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에서 간행한 『사진자료집I: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2001)를 텍스트로 삼았다. 여기에 수록된 1940~70년대 사진들은 저마다 시대를 담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으로써 다양하고 때로는 상충되는 목소리들이 녹아 있다는 점에서 한 개인의 특이한 서사를 넘어 한 시대의 집합적 경험으로 읽힐 수 있는 것들이다(김은석, 2001: 14).

1940~70년대 제주사회는 흔히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으로 일컬어지는 혼란과 격변 이전의 시기와도,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로 불리워지는 오늘날 관광제주 시기와의 구분되는 격동기였다. 지금까지 이 시기에 대한 연구는 제주사회의 근대적 제도의 도입과 전개 과정이 논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제도 그 자체가 사람들의 근대적 경험을 구축하는 것은 아니다. 모더니티가 실현되는 곳은 오히려 일상이다. 근대화가 어떠한 문화적 조건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조직해내며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까닭이다(김은실, 2002: 193). 예컨대, 하이힐을 신고, 단발머리에 짧은 치마를 입은 신여성은 기존 문화와의 차별화된 행동 때문에 사회의 주변인으로 눈총을 받는 집단이었지만 근대로의 진입과정에서 구습에 저항했던 새로운 문화적 주체였다. 이들에 의해 주도된 근대적 양식들과 더불어 그것을 뒷받침했던 새로운 가치관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계량화를 통해서 접근할 수 없는 일상에 내재한 의미, 가치 기준을 둘러싼 모순과 긴장을 이해해 보고, 기존 사회관계의 변화를 수반하는 역사의 동력을 파악해 내는 작업은 근대에 대한 또 다른 시각과 더불어 지금까지 주변화되고 일탈화되어 왔던 여성의 역사(her-story)에 대해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비록 빛바랜 낡은 사진들이

지만 이를 통해 이미 습관화되는 일상들의 기원을 살펴보고, 지금은 당연시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내적 충돌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왔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근대성이란 추상적 원리가 아니라 생생한 경험의 세계라는 점을 확인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 노동의 공간의 이동과 여성교육

제주여성들에게 근대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섰을까? 이 시기 일상에서의 두드러진 변화는 우선 ‘노동’과 ‘교육’의 영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진 1〉 물질



〈사진 2〉 섶바느질



<사진 3> 양태짜기



<사진 4> 여성 노동자들의 봄소풍

### 1) 노동

노동공간인 일터는 전통적으로 가정이었다. 부모와 자식, 젊은이와 노인, 남자와 여자, 각각의 역할은 가족 내에서 상호 협업체제 속에서 이루어졌다. 가내노동공간에서 수세대 동안 여성의 집안 일은 사적 세계의 상징이었다.

제주사회의 경우 전통적으로 여성의 가내노동은 <사진 1, 2, 3>에서 보는 것처럼 물질, 삶바느질, 양태짜기 등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노동 장소가 가정에서 벗어나면서, 여성노동의 영역이 사적공간에서 공적공간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사진 4>는 1960년대 제주시 무근성(삼도1동)에 있던 직물공장 여성노동자들이 봄소풍 기념사진이다. 오른쪽 사진들은 1960년대 대구에 소재했던 대한방직 공장에 일하던 모습 <사진 5>와 1940년대 오사카 방직공장에서 일하던 모습 <사진 6>이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공적인 여성 노동의 현장은 제주도내 는 물론 대구, 일본 등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당시 한 언론에 “10환짜리 한 장이 귀하기 짝이 없는 농촌에서 연약한 여자의 힘으로 송아지도 사고 옷가지도 장만 하고 발레기도 장만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정도로 방직공업을 비롯하여 성냥, 고무화 제조공장 분야는 여성노동자들이 선호하는 직종이었다(동아일보, 1960. 2. 11).



<사진 5> 대구의 방직공장에서



<사진 6> 오사카의 한 방직공장에서



노동공간이 사적공간에서 공적공간으로의 이동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노동과 관련되어 있던 규칙들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노동의 세계는 사적 차원의 규범이 아니라 집단적 계약에 의해 지배받는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당시 여성 임노동자에게 노동 현장은 어떠했을까? 가정의 문을 나서서 사회적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은 다양한 사회 영역에 접촉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성별의 역할은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폭넓은 여성의 사회노동 참여는 사회생활 제반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장에서 미혼 여성들이 경험한 것은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정체감이라기 보다는 부모를 비롯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공적 가부장제 내 근로 미혼여성의 지위였다(김은실, 2002: 200). 따라서 이들은 공적 영역인 노동 현장에서 사적 영역의 가부장적 가족관계가 국가, 직장으로 확대된 광의의 가부장적 성별 체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시선이 인물을 포착할 때 그것을 포착하는 습속화된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진 7>은 당시 성별체제의 단면을 읽어낼 수 있다. 1970년대 우체국 직원들의 모습인 이 사진의 인물 배열은 중심에 남성 있고, 주변에 여성 직원들이 시선의 중심에 벗어나 있다.<sup>2)</sup>



<사진 7> 1970년대 우체국 여직원들

<사진 7>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노동공간의 이동은 근대적 현상이지만, 그들에게 가부장적 질서가 확대된 노동현장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장인 동시에 긴장과 갈등의 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혼여성들은 일과 맺었던 자신이 경험을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평생의 자기 정체성인 여성/모성을 획득하는 결혼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었다(김은실, 2001: 201).

## 2) 교육

제주사회에 여성교육은 20세기 초반 선교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사진 8>은 1915년 신성여학교 창립자인 구마슬신부의 송별기념사진이다.



<사진 8> 구마슬신부 송별사진



<사진 9> 재경여학생 재회기념

그러나 1920년대 제주사회에는 여학생들을 위한 상급학교가 없었다. 따라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은 당시 경성 소재 경기고등여학교, 진명고등여학교, 숙명고등여학교, 경기의전 등에 진학해야만 했다(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1: 131). <사진 9>는 1920년대 서울에 진학했던 학생들이 50년 만에 재회한 기념사진이다.

하나의 관행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양층에게서 통용되어야 했다. 당시 신식교육을 받은 이들은 기존의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예고하는 집단으로 등장했다. 특히 새로운 서구의 가치관 속에서 자유와 해방의 길을 발견함으로써 그 자체로 봉건적 규범과 가부장적 사회의 위기를 촉발시키는 단초가 되었다.



<사진 10> 경성유학생 기념



<사진 11> 최초 여성면의원 김명숙

<사진 10>은 경성유학생들이 파고다공원에서 졸업 기념으로 찍은 것이다. 당시 그들은 상급학교 진학 때문에 남성들보다 훨씬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내적 가치나 삶의 외양을 받아들일 때 남성과는 달리 어느 한쪽을 분명히 선택함으로써 다른 여성들에게 마저 천방지축 날뛰기만 하는 세상물정 모르는 여성들로 비춰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는 “여자라면 보통학교 문만 출입하여도 시집 못 간다던 인습을 박차고 나선” ‘당찬 여성’이었다(제주신보, 1952. 5. 9). 이들 당찬 여성들에 의한 도전이 공적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진 11>은 여성의 정치적 진출의 신기원을 이룬 김명숙 의원(당시 56세)의 모습으로서 당시 초대 여성대정면 의회 의원을 지냈다. <사진12>는 1927년 조선여자청년동맹 초대집행위원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강평국과 최초의 여성교육감 최정숙의 모습이다. Felski의 지적처럼 근대적이라는 것은 진보, 질서, 규범의 편에 서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대의 지배적인 규범과 가치에 명백히 대립적인 입장에서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성별체계 질서에 도전하면서 근대를 열어간 선구자들이었다(Felski, 1995: 11).



<사진 12> 1920년대 강평국(아래 왼쪽)과 최정숙(아래 오른쪽)



### 3. 개인에 대한 자각과 인물사진

일상은 본질적으로 평범하다. 그러나 만일 그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소한 일들이 의례나 유행으로 변모하거나 여기에 감상적인 의미가 부여된다면 하나의 적극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인물 사진의 경우가 그렇다.

인물 사진의 대표적인 것으로 첫째, 개인 초상을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주인공의 사회적 위치를 과시하는 초상화가 있다. 그러나 왕의 초상인 어진(御眞), 나라에 공을 세운 공신도(功臣圖), 위대한 학문적인 업적을 이룬 대학자 초상 등에서 보듯이 초상화는 가문의 사회적 위계를 위한 지배층의 전유물이었다. 이런 초상화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은 엘리야스(Norbert Elias)가 '문명화 과정'의 메커니즘을 해명하면서 제시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sup>3)</sup> 즉 사진의 출현과 확산을 계기로 일반의 취향으로 변용되고 이것이 점차 소수에서 대중으로 확산되어 나간 것 이다. 초상화의 성격도 달라져서 <사진 13>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 대중은 자신의 존재를 남기기 위해 자신의 이미지를 소유하고 나아가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무렵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



<사진 13> 회갑기념



<사진 14> 1950년대 결혼식



<사진 15> 1950년대 한국전 참전 당시 가족기념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감각이 고조되고 사회적으로 확인 받고자 하는 욕구가 일반화 되는 근대적 담론에 접어들게 되었다.

둘째, 가족사진을 들 수 있다. 사진은 시간별로 회상하기에 적절한 기념물이라는 점에서 가족사의 특정한 추억을 위한 사진들이 등장했다. 가족사진을 찍는 심성은 가족 관계망의 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아래 결혼식 사진처럼 가족의 중대사 즉, 결혼, 출생, 죽음을 통하여 영속화되고 있는 가족관계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가족 사진이 일반화되면서 가족 구성원의 초상을 진열하는 것은 혈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것은 상징이면서 동시에 기억의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가족구조의 윤곽을 명확하게 해주었으며, 집단의 단결을 강화시키는 효과적인 시각매체로 작용했다. 이러한 가족 사진 가운데 특히 전쟁을 통해 기억을 보존하려는 사진들이 유행했다.

예를 들어 징용전야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사진 16>의 제공자에 따르면 “자신이 태어나기 전 아버지는 징용되어 일본으로 떠나게 되자 혼례를 올린 지 얼마 안 된 어머니, 두 고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1: 46). 이처럼 가족사진은 각자 과거의 사건을 마음 속에서 재현하는 회상행위의 매체인 것이다.

한편 가족 사진 속에는 가족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과 남성, 세대 간에 관한 언설들이 모순되고 충돌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왜냐하면 아직도 개인의 가치가 가문에 따라 매겨지며,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가문의 성공이 중시하는 시대라는 점에서 결국 가족



<사진 16> 1940년대 징용전 가족기념

은 한편으로 권력의 공간임을 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집안의 대사인 결혼식 사진에서 잘 드러난다.

오늘날 결혼은 과거처럼 더 이상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는다. 결혼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존중된다. 이는 결혼을 두 남녀가 결혼조건을 타협해가면서 결합하기를 동의하는 일종의 계약의 개념으로 파악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장필희, 1997: 47). 그러나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결혼은 가족의 율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부부의 결합인 결혼식은 당연히 공적인 것이 되어야 했다. 즉 결혼은 가족사였으며, 따라서 가부장이 직접 관여했다.

이러한 관행은 당시 결혼사진의 인물 배열의 투시점에 그대로 반영된다. <사진 17>의 경우 주인공은 신랑 신부이지만 가족의 어른이 시선의 발원점이다. 이것은 신랑신부 보다고 특권화된 시점임을 뜻한다. 물론 근대에 오면서 가족적 위계가 부과하는 구속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이제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더 이상 말 많은 이웃과 이러저러한 친족들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가족이 축소되면서 가족내부의 구속력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가족에 연루되어 있던 여러 사회적 기능들이 축소, 소멸되었지만 가족 성원의 정서적 기대충족, 즉 가족중심주의가 훨씬 강화되는 것이 근대이다.



<사진 17> 1970년대 결혼식

#### 4. 유행과 몸에 대한 숭배

프랑스어 ‘모데르니테’(modemité)는 유행과 소비주의에 의해 형성되는 일상생활의 미학화를 가리킨다면(Felski, 1995: 13) 근대성의 가장 주요한 징표는 무엇보다도 유행이다. 유행은 곧 기존 사회에 이질적인 문화를 접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따라서 어느 정도 일탈적인 행동양식을 가질 수 있어야 가능했던 부분이다. 20세기 중반 이질적인 문화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사람은 신식여성들이었고, 이들은 차별적인 행동양식과 생활수준 그리고 외양을 통해 자신의 문화적 차별성을 드러냈다. 이것이 하나의 행동방식인 유행으로 옮겨지면서 그것은 하나의 대중화된 소비패턴이 되었다.

<사진 18>에 나타나는 당시 헤어스타일은 세간의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퍼머넌트 머리에 양장을 하고 하이힐을 신은 신식 여성의 모습은 단순히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문화적 전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러하다. 처음 단발을 실천한 여성은 기생이다. 그러나 점차 인텔리 여성들에게 소개되면서 여성의 단발은 단순한 유행 이상으로 세간의 관심과 논의의 중심이 된다. 그것은 ‘신체발부 수지부모’, 그리고 ‘남녀유별’의 관념이 편리함과 현대적 감각을 추종하는 태도로 전환되는 과정



<사진 18> 1960년대 송별기념



<사진 19> 1960년대 미니스커트와 판탈롱을 입은 여성들

에서 봉건적 여성관에서의 해방이라는 복합적인 일련의 과정들이 내포되고 있다. 단발은 이런 의미에서 모더니티의 진정한 표상이었다.

헤어스타일 다음으로 두드러진 것이 의복이다. 그것은 개체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이면서 동시에 주거에 비해 사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로 말미암아 의복과 패션 등의 근대는 보다 대중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면서 전개된다.

<사진 19>에서 보는 것처럼 유행은 전통, 관습에 도전함으로써 위계적인 사회구조와 지배적 사유양식에 대항했던 반란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가능했다(Felski, 1995: 13). 이제 제주사회에도 1960년대 여성들이 미에 대한 관심, 화장, 립스틱, 메니큐어 등은 더 이상 멋쟁이나 화류계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자신의 매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나무랄 데 없는 수단이였다. 신체적 외양이 중시된 것이다.

과거 튼튼한 몸이 아름다운 몸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신체는 복권되고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주장되고 과시되는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신체의 복권은 개인이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들과 맺는 관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다. 화장을 하고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며 조깅, 테니스를 하는 것은 신체를 활동의 목적이자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육



체노동에서 신체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하지만 요리 같은 활동에서 신체는 목적이며 준비된 요리는 수단이다. 오늘날 새로운 현상은 신체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육체활동이 일반화된 데서 찾을 수 있다. 근대란 이처럼 자기 외모에 만족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시대의 출발인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1950년대 무렵 공식화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1959년 일간지 <제주신보>가 주최한 ‘미스제주 선발대회’가 개최되었다. 당시 지원 자격을 보면 18세 이상의 미혼녀로서 초등학교 이상 졸업정도의 교양과 학식이 있는 순진한 인물이며 균형된 체격을 요구하고 있었다(제주신보, 1959. 4. 16).

이제 몸을 중시하고 개인적 정체성의 초점으로 파악하는 일들이 <사진 20>, <사진 21>에서 보듯이 일상



<사진 20> 1975년 제2회 미스제주 선발대회



<사진 21> 1972년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

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유교적 전통은 신체를 감추도록 요구했지만 위의 사진처럼 신체를 드러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자기 몸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낀다는 의미였다. 책임감이 달라진 것이다. 오늘날은 이전 세대보다 자기 생각과 감정, 꿈 열망 등에 책임을 덜 느낀다. 그것들을 외부에서 강요된 것처럼 받아들인다. 반대로 자기 몸에 대해서는 더 일체감을 느낀다. 가면에 불과한 사회적 정체성보다는 또 부서지기 쉽고 조작된 사상이나 신념보다는 몸이 자아의 진정한 실체라고 믿는 시대이다. 몸이 복권된 사회에서 진정한 삶은 더 이상 고된 노동이 아니라 바캉스이다. 여기서 신체가 활짝 개화되고 모든 족쇄가 풀려난다.

<사진 22>에서 보듯이 당시 휴일을 즐기게 하기 위해 가족 동반으로 공원이나 야외에 나가는 경우도 부쩍 늘게 된다. 가족동반의 나들이나 야유회는 젊은 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중년층에서도 보이는 현상이었다. 인구의 대다수가 궁핍한 상황에서 일상생활에서 휴식에 대한 생각조차 힘들었지만 중산층에서는 여가 이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1950년대의 궁핍에 관하여 말하자면 1957년 5월에 서울시내 초등학교생의 90%가 점심을 못 먹는 결식아동일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댄스홀이나 바가 성행하고 유흥지가 흥청대는 향락과 풍요가 동시에 존재하였던 것이 근대의 이중적 모습이기도 했다.



<사진 22> 1967년 야유회

## 5. 결 론

근대는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낸 역사적 현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모든 사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근대’란 사실상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근대성의 담론에는 하나의 동질적인 문화적 함의가 존재하기 보다는 특히 세대간, 성별간 서로 중첩되고 충돌하는 다양한 반응들이 등장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근대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 근대화를 자본주의 발전과 민족국가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왔다. 그러나 근대란 제도의 변화만으로 과거의 두터운 벽을 이해할 수는 없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상의 삶에 대한 이해없이 근대를 파악하는 것은 표피적인 것이라 하겠다.

특히 근대성과 남성성에 의해 지배되는 공적 제도와 동일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의 삶, 관심사, 전망들이 거의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근대의 각종 제도 밖에 존재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여성이 근대의 다양한 국면들과 교차하는 이 독특한 만남을 무시한 기술은 그 어떠한 역사적 의미도 얻을 수 없게 된다. 이 글은 일상의 편린들을 담은 사진들을 통해 근대 일상에 내재한 의미, 가치 기준을 둘러싼 모순과 긴장을 이해해 보고, 기존 사회관계의 변화를 수반하는 역사의 동력을 파악해 보았다.

물론 젠더 내부의 계층적 차이에 따른 차이와 문화 전통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이다. 다만 여기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여성에게 있어서의 근대의 의미를 찾아보고 당시 여성들이 제기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했던 것들을 드러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보다 정교한 연구가 이 내용을 정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

### ■주

- 1) 이 글에서 근대란 당대의 지배적인 규범과 가치에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자 한다. 그러므로 근대성은 시간적으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언제라도 이쪽 저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일련의 시간적 좌표를 포함하는 것이다.

- 2) 사진 속의 인물배치를 다루는 문제는 동시에 그 안에서 작용하는 권력이 작동하는 ‘체제’를 다루는 문제이다. 이러한 체제가 ‘시선의 체제’이다.
- 3) 문명화 과정이란 지배계층의 차별화 전략에 따른 문화의 변이와 하위 계층들의 수용 및 내면화에 따른 문화의 보편적 과정으로 집약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은석, 2001, “클리오의 신전에 등재되는 제주여성들의 이야기,” 사진자료집I: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편, 서울: 심산, 8-16.
- 김은실, 2002, “한국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논리와 성별정치학,”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성이 정치학, 한국여성연구원 편, 서울: 푸른사상, 183-212.
- 동아일보, 1960.2. 11.
- 장필희, 1997, “결혼제도와 성,” 한국여성학, 제13권 2호, 41-76.
-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편, 2001, 사진자료집 I: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서울: 심산.
- 제주신보, 1952. 5. 9.
- 제주신보, 1959. 4. 16
- Davis, Natalie Zemon, 1996, “Women’s History in Transition: The European Case,” in *Feminism and History*, ed. Joan Wallach Scott, Oxford.
- Felski, Rita, 1995, *The Gender of Modernity*, Mass.
- Jenkins, Keith, 1991, *Re-thinking History*, London.
- Muir, Edward & Ruggiero, Guido(ed.), 1991, *Microhistory and the Lost Peoples of Europe*, Baltimore and London. ㉸

투고일 2011. 07. 15  
수정일 2011. 07. 22  
확정일 2011. 07. 29